

## ※ 러시아 18세기, '학습'의 시대

- I. 표트르 대제, 유럽화(=서구화) 개혁과 그 정점으로서의 천도(遷都)
- II. 러시아의 서구화, 정체성과 진로 설정의 열쇠
- III. 18세기 - 절대주의 시대, '학습'의 세기

### I. 표트르 대제, 유럽화(=서구화) 개혁과 그 정점으로서의 천도(遷都)

1. 서구화(=유럽화) 개혁 조처 - “우리는 러시아인이 아니라 표트르 사람(Петровиан)이라고 불려야 한다. 러시아는 표트르의 땅(Петровиа)이고 우리들은 표트르 땅의 사람들(Петровиан)이다.”

1) 교회세력 약화 - 러시아 정교회의 수장인 총대주교를 황제가 임명. 17세기 구교도 분열을 거치며 국가에 대한 교회의 영향력 급감.

2) 관등제도(Табель о рангах) 확립 - 황제에 대한 충성에서 ‘조국에 대한 충성’으로 전환을 유도, 신분제가 아닌 ‘능력’에 의한 조국에의 봉사의 기회 부여, 관직과 급여를 통해 황제에의 예속을 시도

3) 군제 혁명 - 해군을 창설하고 육군을 현대적 체제로 개편, 편제하며 상비군 체제를 도입하는 등 군제도 일체를 개혁

4) 외교 혁명 - 황제라는 명칭을 차르(Царь) 대신 임페라토르(Император)를 도입, 중세적이며 봉건적인 경제구조를 탈피, 산업화와 함께 근대 유럽국가로서의 외교적 기틀 마련

5) 행정 혁명 - 기존 유명무실하던 전국회의 등의 대표기구를 대신해, 9명으로 이루어진 원로원과 9개의 참사회(콜레기아; коллегия)를 구성, 군사, 사법, 외무, 재무 등의 국가 행정을 분담

6) 문화 혁명 - 중세로부터의 키릴 문자를 간소화한 <시민 문자>를 출범시켜 학문의 부흥에 도움, 학술원(Академия наук; 1724) 설립, 최초의 신문을 발행하고, 청년들을 외국으로 유학보내고 국내에도 많은 학교 건립. 그리고 율리우스력을 채택하는 역법 개정 단행.

7) 대귀족세력 약화 - 세습 대귀족(보야르; бояре) 세력을 억누르며, 세습작위와 재산에서 관직을 중요시하는 분위기 형성

8) 황실과 귀족의 의식주 및 풍습 변화 - 서구식의 생활 습속 전파, 여기까지 황제 자신의 의도로 조종될 것을 겨냥

9) *Go West!* - “유럽을 향해 난 창”(Окно в Европу). 정치, 군사, 행정, 교회, 산업, 문화 부분의 개혁과 근대화를 추진. cf) “유럽인이 되라기보다, 유럽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랏!!”

10) <18세기 상트-페테르부르크> - 성 베드로(Св. Пётр)의 “반석위의 도시”를 러시아에 되풀이. 요새 도시, 삶과 연기가 뒤섞이고 욕망이 분출/억제되는 연극의 무대와 같은 일종의 허상, 비(非) 리얼의 공간, ...

\* **한계** - 지속성과 대의적 합의 부족, 반대파들에게 심지어 악마에게 홀린 황제(적-그리스도)라는 공격을 허용할 정도로 충격적이기도 했었음. 동시에, 가장 큰 한계이자 또한 당대로선 어쩔 수 없는 부분으로서, 유럽의 절대주의 황정 국가의 외부 틀은 가져 올 수 있었지만, 그 내부의 오랜 사회적 축적까지 한번에 체화할 수는 없었다.

\* **의의** - 17세기 초반 왕조가 바뀌었지만, 사실 중세 모스크바의 전통이 그대로 이어지거나 혹은 더욱 퇴행적인 방향으로의 변화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 표트르 대제의 국가 체제 개편과 군 현대화 등을 통한 일종의 부국강병 정책, 그리고 이를 통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권 형성의 노력이 있었다. 이는 한편으론 16세기부터 시작된 서구 국가의 해외식민지 개척 등으로 인한 제국주의적 열강으로의 도약에 러시아도 맞설 수 있는 최소한의 토대를 제공했으며, 다른 한편으론 중세적 러시아와는 판이한 서구 근대의 국가 외형의 도입을 통해, '유럽의 일원'이 되고자 한 표트르 대제의 야심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 **잊지 말아야 할 점** - 표트르 대제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천도 결정과 수도 건설, 러시아의 급격한 서구화 등이 결코 대제 한 명의 갑작스러운 결정과 그의 강력한 지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17세기부터 쌓여온 서구로의 출구 확보, 모스크바를 근거지로 한 세습대귀족 세력들의 연합과 허약한 통치권 강화 등의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루어진 것이다.

## 2. 표트르 대제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라는 현상의 의미

- 1) 중세의 내폐적 통치자에서 근대 외향적 통치자의 최초의 모습
- 2) 러시아 사회, 문화, 역사의 변증법적 발전의 두 축을, 결과론적으로 제공 - 모스크바(동) vs 상트-페테르부르크(서)
- 3) 제국과 사회, 민족의 분열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동력으로서 두 축의 병립(竝立)은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도.
- 4) 표트르의 개혁과 천도, 초기엔 여전히 불안했음. 그의 사후(1725), 수도를 다시 모스크바로 옮겨 가버리기도 했음.
- 5) 일개 도시 이상의, "러시아인을 유럽인으로 개조하기 위한 거의 유토피아적인 방대한 문화 공학 계획"

## II. 러시아의 서구화, ... 정체성과 진로 설정의 열쇠

- = '다른' 서구, '접이적' 서구, ... ?
- = 서구와 아시아라는 두 축을 오가는 진자운동과 같은 정체성 형성과 역사적 진로 설정
- = 관념적 서구와 실제적 서구의 괴리
- = '잃어버린' 서구에 대한 기억

### III. 18세기 - 절대주의 황정의 시대, '학습'의 세기

; 세기 초 표트르 대제의 치세(1672~1696-1725; 1/4) 동안 상트페테르부르크 건설과 러시아 제국의 기틀이 닦였다면, 18세기 절대주의 황정의 시대와 러시아 제국의 전성기를 완성한 인물은 손녀 며느리에 해당하는 예카테리나 여제(1729~1762-1796; 4/4)이다.

= 예카테리나 여제는 표트르 대제가 닦은 절대주의 황정의 기본 틀을 이어받아, 이른바 “계몽군주”로 자처하며 러시아 제국의 팽창을 위한 틀을 완성했다. 그러나, 전제 군주정의 입지 강화와 귀족들의 지지를 위해, 그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귀족세력의 황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책을 펼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농민을 비롯한 일반 민중 절대다수의 고통이 가중되고(ex. 농노제) 귀족들의 이익이 강화되어, 이후 19세기 러시아 사회의 귀족과 평민간의 깊은 갈등의 골을 제공한 셈이기도 하다.

- 결국 이런 농민을 비롯한 평민에 대한 불이익은 당대에 이미 반항이 있었으니, 러시아 중남부 농민 및 자유향을 상실한 카자크의 불만이 겹쳐 발생한 예밀리안 푸가초프(Е. Пугачев)의 난(1772~1775)이다. cf) 스테판 라진과 혼동 주의!

- 이 푸가초프의 난을 진압하며 여제는 확실한 보수주의적 경향으로 기울어, **지방행정을 완전히 개혁, 중앙집권으로 바꾸고**, 이후 러시아 제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을 절대주의적 황권을 강화하게 된다.

- 이러한 강력한 황권은 또한 대외정책에서 투영되어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1783년에는 크림 반도까지 손에 넣었고, 1795년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프러시아와 폴란드까지 분할해 러시아 제국의 대외적 팽창은 그 절정에 달했다.

-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억압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제 자신의 정책적 지향으로서의 ‘계몽’의 시대를 경험하며 서구를 학습한 지식인들에 의해 반발을 사게 된다. (ex. 라디시체프)

➢ 근대화의 정화(精華) - 미하일 바실리에비치 로모노소프(М. В. Ломоносов; 1711~1765)  
; 18세기 러시아의 백과사전적 인물(러시아판 아리스토텔레스)이자 하나의 ‘현상’

- 종합 지식인인 자신의 삶의 체현으로서,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설립자(МГУ им. М. В. Ломоносова; 1755).

- 신분제가 아닌 “국가에 대한 기여”(Служба Отечеству)라는 합리적, 이성적 기준에 의해 국가경영을 이룰 수 있다는 의식은 어쩌면 그 당시 러시아가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학습’이었을 것이다.

=>> 18세기, 맹렬한 서구화를 추동한 러시아는 기존의 방어적, 내폐적(內閉的) 성향을 탈피, 적극적으로 외부 세계와의 교류에 뛰어들게 된다. 그 교류의 일체를 <학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세기의 학습을 토대로 러시아는 19세기, 비잔틴에 이어 두 번째 스승이라 할 수 있을 서유럽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신들의 문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형식적 틀로서의 ‘거푸집’을 얻게 되는 것이다.

= 문학사를 비롯한 문화사로 좀더 좁혀 이야기하자면, 17세기 말까지 이어 내려오던 중세 러시아 문학의 전통이 일종의 ‘흙’으로서의 토양 그 자체라 한다면, 18세기 절대주의 시대, 서구화를 학습하며 이 흙을 담아낼 ‘화분’을 구워 만들게 되었고, 이후 19세기, 비옥한 흙을 담은 화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이라 수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